

금계 황준량의 서원활동과 교육론*

이 수 환**

- I. 머리말
- II. 퇴계문인의 서원건립 활동
- III. 목민관으로서 황준량의 서당·서재 창설
- IV. 황준량의 서원활동과 교육론
 - 1. 서원활동
 - 2. 서원교육론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퇴계와 그의 문인들에 의해 서당과 서원의 건립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에, 퇴계문인인 황준량의 서당·정사 건립 및 서원활동을 검토하였다.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의 대표적인 향촌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조선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퇴계문인들의 서원보급 운동이나 이들의 서원활동 등에 대한 해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9월 22일 『금계 황준량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금계 황준량의 서원활동과 교육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wndgy@ynu.ac.kr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지만, 여기에는 퇴계의 서원론에 공감하고 서원보급에 동참 하였던 퇴계문인들의 역할이 크다. 황준량은 서원이 보급되던 초창기에 퇴계와 더불어 활발히 서원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황준량은 신녕, 단양, 성주 등 지방관 재직 시 백운동서원과 영봉서원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였고 나아가 신녕 白鶴書堂과 성주 鹿峰精舍와 孔谷書堂을 건립하며 퇴계의 교육론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그의 서원활동에 대한 검토는 퇴계의 서원보급 운동을 이해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白鶴書堂, 鹿峰精舍, 迎鳳書院, 迎鳳志, 錦陽精舍

I. 머리말

본 논문은 퇴계와 그의 문인들에 의해 서당과 서원의 건립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에, 퇴계문인인 황준량의 서당·정사 건립 및 서원활동을 검토하였다.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의 대표적인 향촌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조선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대체적인 내용은 밝혀졌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퇴계문인들의 서원보급 운동이나 이들의 서원활동 등에 대한 해명은 미흡한 실정이다.¹⁾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지만, 여기에는 퇴계의 서원론에 공감하고 서원보급에 동참하였던 퇴계문인들의 역할이 크다.²⁾ 황준량은 서원이 보급되던 초창기에 퇴계와 더불어 활발히 서원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³⁾ 따라서 그의 서원활동에 대한 검토는 퇴계의 서원보급 운동을 이해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퇴계문인의 서원건립 활동

-
- 1) 퇴계의 서원보급운동과 서원론에 대해서는 이우성, 「李退溪와 書院創設運動」, 『退溪學報』 19, 1978 ;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그의 敎化論과 관련하여-」, 『韓祐庠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김형수, 「李滉 書翰을 통해 본 明宗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이 있다.
 - 2) 퇴계문인들의 서원건립 활동에 대해서는 권시용, 『퇴계문인의 서원건립 활동』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이 있다.
 - 3) 황준량은 초기 퇴계문인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연구도 대부분은 한문학 분야에서 접근한 것이고, 서원활동에 대해서는 김종석, 「錦溪 黃俊良의 사상과 退溪學 계승 양상」 『퇴계학논집』 136, 2014에서 간략히 언급한 정도이다.

조선에 있어서 서원제도는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설립으로 출현하였지만 이후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 이황이었다. 퇴계는 당시 조선사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시기 집권층의 권력을 이용한 私利 추구를 배제하고 公道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퇴계는 이러한 관료사회의 부패는 士習의 不正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이는 수기를 통한 正人心한 인간형의 창출로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퇴계는 이와 같이 治人의 전제로서 爲己之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서원이라는 새로운 학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퇴계는 서원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관학인 향교와 성균관은 항상 분담한 변화가에 위치해 있어서 차별하게 공부할 수 없고, 또한 과거와 관련되고 學舍에 구애받기 때문에 출세주의·공리주의를 떠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⁴⁾

그는 당시의 정치현실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시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사립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따라서 그는 향촌의 士子에게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학문체제를 훈도하고 수련시킴으로써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가올 사립의 시대를 준비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대 주자에 의해서 창안된 지방사학으로서의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학체제의 확립은 선초 이래 있어온 중앙통제방식의 관학적 교화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사립 위주의 새로운 교화체제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다.⁵⁾

퇴계는 신진사립의 강화·장수처로서 서원제에 주목하여, 풍기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의 사액과 확충에 힘쓰고 더 나아가 고향 예안에서 향촌사립과 제자를 총동원해 직접 서원 건립을 주관하는 등 그 창설 보급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한편으로 院規를 직접 제정해 유생들의 공부의 영역과 학문에 임

4) 정만조, 앞의 논문, 60~67쪽.

5) 이우성, 앞의 논문.

하는 자세 및 그 운영방향 등을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퇴계 생전에 건립된 서원은 모두 18개소가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퇴계 본인 및 그의 문인들이 건립에 관여한 서원은 13개소이다. 나머지 5곳은 함경도·평안도·황해도 등 지리적 먼 곳이다. 퇴계는 예안에서 문인들과 함께 역동서원의 건립을 주관하고 院記를 지었으며, 伊山·迎鳳書院의 건립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원기를 지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생전에 신진사림의 강학·장수처로서 서원제에 주목하여, 그 건립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나아가 원규(伊山院規)를 지어 서원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고 앞으로의 서원 운영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

퇴계 문인들은 이러한 퇴계의 서원론에 공감하고 서원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서원은 단기간에 하나의 교육제도로써 자리잡게 될 수 있었다. 퇴계는 이 시기 각지에서 문인들이 주도하는 서원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였는데, 퇴계 문인들은 서원 건립에 있어서 제향 인물의 선정·서원규모·절목·교육·도서출판 등 모든 문제를 퇴계의 교시와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고, 건립에 필요한 기문·당호·서적 등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뿐 아니라 특히 지방관 재직 시에 서원 건립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계 문인 중 17명이 지방관으로 22개소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부임지에서 立院 논의를 주도하거나 향인들의 서원 건립을 독려·권면하고 행정·경제적 지원을 담당하였다. 또 건립 후에도 서원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다하고 강학활동에 참여하는 등 서원의 운영에도 적극적이었다.

퇴계 문인으로 서원건립에 관여한 사람은 56명으로 43개 서원의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를 이 시기 건립된 전체 서원수와 비교해 보면 명종연간에는 16개소 중 11개소로 약 69%를 차지한다. 11개소 가운데 경상도 9개소, 강원도와 전라도가 각 1개소이다. 선조연간은 전체 80개소 중 약 37%인 29개소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임란 이전에는 55개

소 중 23개소로 약 42%를, 임란 이후에는 25개소 중 6개소로 약 24%로 나타난다. 임란 이후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는 새로 건립된 서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시기에 퇴계문인들은 임란 후 폐허가 된 川谷(성주)·金烏(선산)·雙溪(현풍)·濫溪(함양)·德川書院(진주) 등의 중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서원 건립의 열의는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때 퇴계문인들은 그들이 활약했던 선조연간까지의 서원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서원제의 전국적인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⁶⁾

이 시기 퇴계문인들은 이러한 서원 건립뿐만 아니라 서원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선비들의 장수처로서의 서당·정사 등도 활발히 건립하여 나갔다. 서당·정사 등의 개설은 16세기 사림의 성장과 맞물려 확대되어 나갔는데, 특히 이 시기 관학의 부진과 연산조의 양대 사회를 거치면서 기성학자들의 은둔사상이 고조됨에 따라 더욱 활발해졌다. 퇴계문도들의 본거지인 안동에는 『永嘉誌』에 의하면 20여 개의 서당이 실려 있다. 서당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은 퇴계의 문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⁷⁾ 이들 서당은 설립과 교육목표가 서원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시기 서당 건립도 서원보급 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 서원중에는 伊山書院, 研經書院 등 사묘 없이 건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퇴계에 있어서 서원은 강학이 일차적인 것이었다. 尊賢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형태인 제향과 사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퇴계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던 靑城精舍(안동, 權好文), 鏡光書堂(안동, 권호문), 龍山書堂(具鳳齡, 안동), 迂溪精舍(李德弘, 영주) 등은 제향시설 없이 서당·정사로 건립되었다가 후일 건립인을 제향하여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서당은 제향의 기능이 없었다는 점에서 서원과 확연히 차이점이

6) 경상도에 건립된 서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명종연간 9개소 모두, 임란 이전까지 30개소 중 약 70%인 24개소의 서원 건립에 퇴계문인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권시용, 앞의 논문(2009), 10~19쪽 참조.

7) 16세기 서당과 퇴계학파의 서당 건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76~143쪽 참조.

있지만 학문적 지향에 있어서는 서원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사학교육기관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준량은 16세기 중반 이러한 퇴계와 문인들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서당·서재 건립과 서원창설 운동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준량 생전에 서당은 거의 없었고, 서원도 경상도에 건립된 것은 순흥 백운동서원(1542), 함양 남계서원(1552), 영천 임고서원(1553), 의성 빙계서원(1556), 영주 이산서원(1558), 성주 영봉서원(1558), 경주 서악정사(1561) 등 7개소이다. 이중에 백운동·영봉서원은 황준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임고·서악서원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건립과 관련된 사정은 파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III. 목민관으로서 황준량의 서당·서재 창설

황준량은 1540년(중종 35) 문과 급제 후 성주훈도를 비롯해 상주교수·경상도 監軍御史·신녕현감·단양군수·성주목사 등 주로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흥학 즉 지역 교육 사업에 큰 관심을 두었고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 인물이다.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령의 중요한 임무인 ‘學校興’에⁸⁾ 충실하였던 것이다. 황준량의 교육사업에서 주목할 것은 관학인 향교뿐만 아니라, 이 시기 퇴계에 의해 보급·확산되어 가는 私學인 서당·서원 교육에도 힘썼다는 점이다. 퇴계가 쓴 그의 행장에 지방관 시절 건립·중수한 학교와 교육 관련 내용이 간명하게 수록되어 있다.

(신녕현감 시절) 학교에 더욱 유의하여 문묘를 새로 증축하였고 힘써 권면하고 훈도했다. 또한 옛 마을에 나아가 學舍를 창건하여 白鶴書院이라 편액하고, 서적을 보관하고 전답을 배치하니 선비들의 마음이 흥기하여 사모하였다.

8) 『경국대전』, 吏典, 考課條.

(단양군수 시절) 향교가 山澗에 닿아 있어 자주 침식되는 근심이 있었다. 공이 옮겨 세우라고 명하여 郡治의 동편에 자리를 구하니, 재목도 훌륭하고 제도 또한 아름다워 온 고을의 면목이 바뀌니 재물이 부족하다고 하여 風化의 근원을 느슨하게 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또 군의 前賢인 祭酒 禹倬의 경학과 충절이 모두 세상의 사표가 될 만하다고 여겨 문묘의 서편에 별도로 집 한 칸을 지어 제사를 드렸다. (성주목사 시절) 학교를 일으키는 한 가지 일을 앞의 두 고을에 비하여 더욱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였다. 이보다 먼저 목사 盧慶麟이 영봉서원을 예전 碧珍의 터에 건립했는데, 공이 인하여 꾸미며 아름답게 하였고, 또 문묘를 증수하여 예전 규모를 확장하였다. (敎官 吳健과 함께 강학 활동을 함) 고을 동편에 孔谷이라는 터가 있었는데, 제생들이 서당을 세우기를 원하므로 인하여 공이 흔연히 집을 짓고 孔谷書堂이라 편액하였다. 또 성주의 팔거현에 鹿峯精舍를 세우고 다양한 방면으로 훈도하니 각각 그 자질의 고하에 따라 성취한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 商山 주세봉이 풍기군수가 되었을 때, 공이 후진으로서 오가며 많이 논변하였는데, 그 다르고 같음과 따르고 어긋나는 사이에 사람들이 벌써 그 견식이 명확함을 알았다.⁹⁾

퇴계는 그의 행장에서 향교중수, 서당·정사 건립, 서원 운영에 참여 등 그의 흥학에 대한 성과를 가장 많이 기록함으로써, 목민관으로서도 혁혁한 치적을 남겼지만 그의 진면목은 교육자에 있었음을 밝혔다. 황준량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특히 지방관 시절에 도학에 심취하여 당시 사림계의 주된 관심사인 서당·서원의 보급과 운영 등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황준량은 1551년(명종 6) 9월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일전에 그에게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는 언관에게 탄핵되어 체직되고 말았다. 이후 황준량은 중앙의 관직보다는 부모의 봉양을 내세워 외직을 청하였다. 그 해 첫 번째 외관직인 신녕현감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기민을 잘 진휼하여 소생시켰으며, 前任官의 負債를 절약과 긴축으로 보충하는 등 재정을 잘 운용하여 부채문권을 태워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목민관으로서의 치적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신경을 써서 문묘를 증수하고, 백학서당을 건립하

9) 황준량, 『錦溪集』 外集, 권9, <行狀(李滉)>.

는 흥학 활동을 하였다.

황준량은 1555년(명종 10) 지역 사림들과 더불어 화남면 백학산 아래 양강 위에 지역 자제들의 강학의 장소로 백학서당을 건립하였다. 황준량은 서당 건립과정에서 당시 사림계의 향촌 내 교육활동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이황에게 여러 차례 질문하여 절목을 詳定하고, 나아가 그 이름을 청하여 ‘백학서당’이라는 名號를 받았다. 이후 황준량은 퇴계가 정한 학규로써 학문을 권장하고 권면하는 본보기를 보였다.¹⁰⁾ 『금계집』에는 백학서당을 세운 뒤에 황준량이 쓴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시는 수년의 황무지를 독서처로 만들었음에 부디 젊은 인재들은 독서에 힘쓰고 학문을 닦는 것은 명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며 당부하고 있다.¹¹⁾ 두 번째 시에서는

당에 오른 선비들 모두가 현인되길 바라고
벽에 비친 힘찬 글씨 서까래처럼 굽구나
오랜 골짜 개척하여 강학 자리 마련했고
거센 물결 둘러막아 멋진 연못 만들었네
존심은 『시경』 세 글자가 요체이고
주경은 『예기』 한 편을 본받아야 하네
시내와 누대가 특별히 시원하여
시 읊으며 돌아가니 봄 흥취에 이끌리네

라 하여 여러 유생들에게 시를 보여주고 이어서 화답하도록 하였다.¹²⁾ 특히 이 시의 하단에 작성된 주에는 당시 백학서당의 풍경을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 鄭梯, 『南窓集』 권3, 記, <白鶴書院風詠樓重修記>.

11) 황준량, 『금계집』 內集 권1, 詩 <白鶴山書院> “名留白鶴感前賢 爲斷雲根架數椽 風月入窓專几席 鳶魚一氣自天淵 幾年荒草開絃誦 半夜晴虹射簡篇 珍重群英須着力 藏修非是利名牽.”

12) 황준량, 『금계집』 外集 권1, 詩 <白鶴山書院> “升堂矜佩儘希賢 映壁銀鈎筆似椽 古洞開荒成講榻 狂瀾回障作文淵 存心要體詩三字 主敬當師禮一篇 玉潤風臺清特地 詠歸春興自相牽.”

백학산은 송나라 시대 사람인 魏了翁이 도를 강론하던 곳이다. 이 산의 이름이 우연히 그것과 합치되고 맑고 상쾌하여 속세를 벗어난 듯하니 진실로 기이한 만남이다. 이에 몇 칸의 집을 얹어 퇴계의 편액을 걸었다. 도서를 수장하고 전답을 마련하였으며, 기금을 넉넉하게 하고 노비를 두어 선비들이 노닐며 쉬는 곳으로 삼고, 원장과 학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冠童들이 책을 끼고 다투어 달려와서 비로소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는데, 많게는 40여 명에 이르렀다. ... 매달 초하루마다 그들이 읽었던 것을 시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분발하도록 하였다.¹³⁾

백학서당의 건립은 퇴계문도들이 스승의 뜻을 따라 서당·서원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갔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건립된 것이다. 서당의 편액을 퇴계가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준량은 당시 퇴계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처음으로 외직에 나가면서 실현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백학서당은 건립 당시부터 서당에서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장서를 마련하고, 경제적 기초로서 토지·노비를 확보하고 또한 서당 운영을 위한 원장·학장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매달 학생들의 교육을 평가할 정도로 안정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백학서당은 서원이라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초창기 서원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황준량 또한 서원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⁴⁾ 이

13)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1, 詩 <白鶴山> “乃魏了翁講道之地 而此山之名 偶與之合 清爽絕塵 眞奇遇也 乃架屋若干 挂退溪扁 藏書置田 贍寶給役 以爲士子游息之地 使院長 學長 幹其事 冠童挾冊爭趨 始知讀書之樂 多至四十餘 一鄉父老 創見而喜 盡力增級期以傳久 每於月朔 讀其所讀 使之感奮 喜有變魯之望 書此示諸生續和.”

14) 백학서당은 1592년(선조 25) 임난 때 소실되었다가 1612년(광해군 4)에 金得禹가 의논을 내어 중건하였으나, 1658년(효종 9)에 땅이 협소하고 위치가 궁벽하여 사당터 북쪽 5리쯤의 吾道里(현 화남면 능계리)로 옮겨 廚廩과 庖舍를 짓고, 1669(현종 10)에 李成春이 강당을 건립하고, 1677년(숙종 3)에 李東碩이 사당을 지었다. 이듬해 曹永夏가 널리 도내 사림들을 맞이하여 3월 두번째 丁日에 이향을 봉안하고 황준량을 종향하였다. 1678년(숙종 4) 서당을 서원으로 승격하면서 사당은 ‘尙德’, 강당을 ‘典敎’라 했으며 1701년(숙종 27) 누각을 만들어 ‘風詠’이라 명명하였다. 풍영루는 1761년(영조 37) 金休와 李梅·權達經 등이 주도하여 새로이 중수하였다(鄭梯, 『南窓集』 권3, 記, <白鶴書院風詠樓重修記>) 1723년(경종 3)에는 이익전 등이 請額

는 황준량이 詩題로 ‘白鶴山書院’이라 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같은 백학서당 초기의 모든 조치는 현감인 황준량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다.¹⁵⁾

황준량의 흥학에 대한 관심은 신녕현감 부임 때부터 나타난다. 백학서당 건립 이전인 1552년(명종 7) 인근 자양현에서 金應生(퇴계문인)·鄭允良(퇴계문인) 등이 후진 교육을 위해 세운 紫陽書堂의 낙성식에 신녕현감 신분으로 초청받아 서당의 기문을 남겼다. 이 자양서원의 편액도 퇴계가 하였다. 여기에는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관이 녹아있다. 그는 “한때 敎養이 잘 되고 못되는데 따라 혹은 밝기도 하며 혹은 어둡기도 한 다름이 있으니, 이는 학교를 설치하여 도를 닦는 교육의 중요함이 된다.”고 하였다. 또 “이 사실을 지은 것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아 벼슬길로 나아가는 기반으로 삼고 또 한 국가가 문명을 숭상하는데도 도움이 있으리.”라고 하였으며, 김응생에게는 독서와 養心에 힘쓰라는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¹⁶⁾ 이후 1553년에 자양서당을 세운 정윤량·김응생 등이 영천에서 임고서원을 건립하자 낙성식에 가서 시를 지었다.¹⁷⁾ 임고서원은 황준량이 『주자서절요』를 간행할 때 목활자를 빌려준 곳이다. 그가 자양서당에 방문하고 기문을 남긴 3년 뒤 건립된 것이 바로 백학서당이다.

1557년(명종 12)에 부임한 단양군수 시절의 행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명종에게 ‘民弊十條’를 올려 10년간 貢賦를 감면 받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단양향교를 중수한 일이다. 황준량이 부임한 1557

疏를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이미 이황을 주벽으로 삼은 사당에 하사한 편액이 10여 곳에 이르며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때이니 만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백학서원은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다가 1900년에 다시 백학서당으로 복원하였고, 이후 1921년 백학학원으로 이어 갔지만 언제 폐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백학학원은 이육사·조재만·이원대·조병화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현재 영천시에서는 백학학원을 복원중이다.

15) 『列邑院宇事蹟』 경상도, <白鶴書院事蹟>에 의하면, 1675년(숙종 1)에 邑士 李暘郁 등이 役事를 시작하여 1678년(숙종 4)에 봉안하였다. 奉安祭文은 牧使 南夢賚, 常享祝文은 參奉 李榮世, 廟宇上樑文은 別檢 李塚, 扁號는 判書 吳道一이 하였다.

16)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1, 詩, <紫陽洞書堂贈金上舍應生>.

17) 황준량, 『금계집』 내집, 군1, 詩, <次臨臯書院落成宴韻>.

년에는 단양군은 10여 년간의 水災와 旱災, 유행병이 돌아 마을이 피폐해져 있었다. 부임 후 마을의 상태를 파악한 황준량은 ‘민폐십조’를 올려 단양의 사정을 호소하였고, 조정에서는 황준량의 건의를 받아들여 10년간 단양군이 부담하는 공부를 면제해 주었다.¹⁸⁾

황준량은 이러한 민생문제뿐만 아니라 문교정책의 일환으로 단양향교를 중창하였다. 1416년(태종 16)에 건립¹⁹⁾된 단양향교는 황준량이 군수로 부임하여 사당에 참배할 때 위패가 물에 잠기고, 서재 터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를 탄식하며 “명색이 공자를 배운다는 자들이 어찌 차마 편안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또 고을은 폐지할 수 있지만 배움은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니, 시기가 적합하지 않고 재력이 부족한 것은 따질 겨를이 없다”라고 하고 바로 향교 중창에 착수하였다. 그해 가을 고을 동쪽에 터를 잡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 봄에 완공하였다. 단시일 내 완공이 가능했던 것은 황준량이 직접 향교 중창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낙성식은 단순히 기념하는 자리만은 아니었고 지역 학문 발전을 추동하는 자리였다. 그는 참석한 유생들에게 학문의 목적과 학문하는 순서 그리고 교육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지역 유생들의 공부를 독려하고 권면하였다. 황준량의 중창 사업에 대해, 단양군수 시절 향교를 현 위치로 이전한 스승 이황도 “재목도 훌륭하고 제도 또한 아름다워 온 고을의 면목이 바뀌니 재물이 부족하다고 하여 風化의 근원을 느슨하게 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²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황준량은 향교 서쪽에 이 지역 출신의 대표적 인물인 禹倬을 기리기 위해 별묘를 세워 그의 학문과 절의를 본받도록 하였다.²¹⁾ 향후 이

18) 『명종실록』, 권22, 12년 5월 기미 ; 『명종실록』, 권22, 12년 5월 기사 ; 『명종실록』, 권22, 12년 5월 임신.

1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4권, <충청도·단양군> “鄕校 在郡南一里有風化樓永樂十四年知郡李作建有記.”

20)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9, 부록, <행장>.

21)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단양향교중창기> ; 외집, 권7, 書, <答盧山仁父論書院事書>.

별묘는 1662년(현종 3) 이황을 추가 배향하여 단양의 유일한 사액서원인 丹巖書院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²⁾ 이러한 황준량의 선정에 감사한 지역민들은 ‘丹陽郡守黃公俊良善政碑’를 건립했고,²³⁾ 1566년 경 이황의 교정을 받은 『금계집』 초간본 발간이 단양에서 이루어졌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황준량의 지방관으로서 교육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는 성주목사 시절이었다. 이 시절 황준량은 이전에 제향인물 선정과 위차문제 등에 관여하였던 영봉서원과 향교를 중수하였고, 나아가 공곡서당·녹봉정사를 건립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황준량은 1560년 權應挺·權應昌과 함께 고을 동쪽에 공곡서당을 세워 이황의 문인이자 『禮書問答』을 지은 李淳을 洞主로 선임해 선비들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승려를 모집하여 수호하게 하였다. 공곡서당은 임난 때 병화를 입자 사림에서 鄭述의 의견에 따라 그 자리에 精舍를 세워 강학 전통을 이어갔다.²⁴⁾

특히 녹봉정사²⁵⁾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鹿峰精舍永慕契案帖』에 기록된 『講舍錄』과 『入舍錄』을 통해 초기 녹봉정사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살펴 볼 수 있어 주목이 된다. 녹봉정사는 1561년(명종 16) 2월에 목사 황준량과 교수 吳健이 都舜臣·宋世禮·李進慶 등 향내인사와 함께 성주의 속현 八莒縣 建靈山 아래 건립하였다. 『강사록』에 의하면 모두 43명이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입록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황준량을 비롯해서 金就文·河晉寶 등 牧使 3명, 오진·黃秀良·郭應機 등 教授 3명, 訓導 1명, 正字 1명, 진사 4명, 생원 2명, 유학 29명으로 확인된다. 講舍는 녹봉정사를 출입하며 이곳을 藏修의 장소로 삼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학 활동을 했던 인사로 여겨진다. 『입사록』에는 녹봉정사에서 공부했던 학생 126명의 성명을 수록해 놓았다. 이들을 거주지 별로 분석해 보면, 성주가 83명으로 대부분을 차

2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지』, 단양군, 2010, 175쪽.

23) 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두악공원 내 세워져 있다.

24) 이 서당은 1675년 무너졌고, 이후 1935년에 李淳欽과 李斗淵이 대가면 칠봉동에 다시 정사를 건립하였다. 『星山誌』 권1, 校院·書堂, <孔谷書堂>.

25) 현재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에 있다.

지하고 인근 대구 15명, 인동 12명, 개녕 4명과 상주 3명, 청도·거창·永川·청주 각 1명으로 확인된다. 『입사록』에 수록된 학생들 중 정구·鄭師哲·鄭光天·徐思遠·李天封 등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저명한 학자로 성장하는 인사들도 많았다.

황준량의 녹봉정사에서 교육 방식은 유생 약간 명을 선발해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성주교관 오건 등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긴 다음 매월 한 번씩 講하여 그동안 배운 글을 背誦시키고 疑義를 논하게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상벌의 차례를 정하도록 교육 하였다.²⁶⁾ 물론 본인도 매번 공무를 마친 후 오건과 함께 책상을 마주하고 강독하며 밤을 새웠고, 혼자 거처할 때에는 조용한 방에 성현의 중요한 가르침을 사방 벽에 붙여 놓고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였으며 ‘靜을 위주로 하고 敬을 견지한다’는 말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²⁷⁾

이러한 황준량의 교육활동에 대해 퇴계는 그의 행장에서 녹봉정사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훈도시켜 성취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²⁸⁾고 하였다. 녹봉정사에서 수학했던 정구도 안동부사로 제수되어 부임하는 길에 황준량의 무덤을 찾아가 올린 제문에서 “... 우리 성주 고을에 오셔서 후생들을 잘 훈도 하였으니 지금도 선비들이 끼친 교화를 감격하여 추대한다네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니 우리 어리석은 유생들은 일찍 알아주고 권장함을 입었으니 나를 아끼는 뜻을 기대하며 허여 하였구나 ...”²⁹⁾라고 황준량의 성주에서의 교육 활동을 찬미하였다. 황준량은 목사직을 이임한 뒤에도 녹봉정사 유생들에게 학문에 힘쓰라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관심이 컸다.³⁰⁾

녹봉정사는 『漆谷誌』에 의하면 건립 초기에 誠正堂·時習齋·養正軒·養浩樓·觀物臺·天淵池와 같은 시설이 있었는데 모두 이황이 명명하고 손수

26) 녹봉정사에서는 지역 인사로 經術과 行誼가 뛰어났던 李昌國을 洞主로 초빙하기도 하였다. 『星山誌』, 권4, <儒望>.

27)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9, 부록, <행장>.

28)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與鹿峯精舍諸生書>; 외집 권9, 부록, <행장>.

29)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9, <제문(정구)>.

30)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與鹿峯精舍諸生書>.

편액을 하였다.³¹⁾ 나아가 퇴계는 황준량의 낙성시에 차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녹봉정사도 이 시기 퇴계문도들의 서당·서원 보급운동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이었다.

鹿峰書齋 건립에서 주목되는 것은 淨土舊寺에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舊宿水寺基에 건립된 데서 보듯이 초창기 서당·서원 등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조선 초기 유불의 교체는 치국이념의 교체인 동시에 종래의 불교시설과 사원소유 田民이 유교적인 시설 내지 사족의 경제적 기반으로 탈바꿈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사원은 국가가 각 읍마다 인정하는 사찰만이 명맥을 유지하였고, 그렇지 못한 사원들은 다수가 훼손되어 향교·驛·院 등 官府시설로 전용되기도 하고 또는 재지사족들의 서당·願堂·재사·정사 등으로 탈바꿈되기도 하였다.³²⁾ 특히 폐사의 이용은 수령권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사화 된 정도사의 터를 녹봉정사 터로 이용한 것은 목사 황준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鹿峰精舍記錄」에 의하면 정사 건립과 동시에 옆에 僧舍를 두어 齋穀을 관리하고 유생을 供饋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도 당연히 목사인 황준량에 의한 조치였다.

이후 녹봉정사의 사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퇴락해 나갔던 것 같다. 그러다가 1801년(순조 1) 李東汲이 녹봉정사의 퇴락과 학규의 문란을 걱정하여, 사림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중수하였다. 이로써 옛 학규가 회복되어 다시 많은 선비들이 모여 들어 朱書 등을 강론하였다고 한다.³³⁾ 이어 1833년(순조 33) 5월 경상도관찰사 金陽淳이 이황의 학문을 가르치는 녹봉정사가 퇴락한 것을 보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한 完文을 칠곡부에 발급하였다. 이 원문은

31) 『칠곡지』, 학교, 녹봉정사.

32) 조선중기에 설립된 많은 서원은 지방관의 도움으로 廢寺의 기반위에서 설립된다든지, 소속사찰을 가진다든지 또는 폐사 및 국가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사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흡수하는 등 사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3장「書院과 寺院의 관계」 참조.

33) 李東汲, 『晩覺齋集』, <行狀>.

후대의 기록이지만 초기 정사의 경제적 운영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간단히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⁴⁾

- 齋生은 10원, 贖人은 20인을 정식으로 하고, 良贖과 奴贖은 반씩 충당한다. 지금 이후로 관은 재생과 속인의 군역과 雜役을 탈급하여 흠어지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 정사에 소속된 승려가 소수여서 많은 선비를 공양할 겨를이 없는데 혹 僧軍에 충당하고, 승려가 집을 비우고 도망할 때에도 軍器籠・繩索 등을 부담하니 本齋 물력으로 매입해서 관에 납부한다. 지금 이후로 승군과 軍器籠・繩索 등은 일절 勿侵하여 정사를 보존할 것.
- 정사 소속 山直 4戶, 庫子와 奴僕 각 1戶는 높은 산마루에 살면서 가난 할뿐만 아니라 儒宮의 잡일에 분주하여 농사를 지을 여가가 없는데 해마다 糶糴이 미치니 불쌍하다. 특별히 蠲頗하여 떠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 정사 소속 승려가 영성해서 매년 居接 시에 사환이 극히 어려워 賁人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관내의 金谷庵・靑蓮庵・道德庵의 승려 수명씩을 本齋의 분부에 따라 盤器를 수취하여 거접 시에 공양 사환 하도록 할 것.
- 정사 주변 四山局內는 守護 禁養을 각별히 해야 한다. 松楸를 벌목하는 자는 관에서 엄중히 처벌한다.
- 정사 소유 齋畝과 接畝는 모두 養士를 위한 것이다. 만약 폐단이 생기면 관

34) 一, 齋生以十員永爲定式是遣 贖人段置亦以二十人定式 而良贖奴贖參半充數是矣 齋生與贖人 每有雜役侵責之患 自今以後 本官惕念斗護 價布充軍等役 一并頗給 俾無渙散之弊是齋.

一, 本齋 數小僧徒 尙不暇於供養多士 而或充僧軍 有空齋逃躲之時 又於式年 責出軍器籠及繩索等物 至以本齋物力 買籠納官 此非愛惜重所之意也 從今以往 僧軍與軍器籠繩索等役 一切勿侵 以爲保存本齋之意是齋.

一, 本齋 山直四戶 庫子路僕 各一戶 僻處高山之絕頂 生涯艱乏 奔走儒宮之使喚 農作無暇 而每歲糶糴 亦及此輩 聞甚矜惻 特爲蠲頗 俾無離畔之弊是齋.

一, 本齋 僧徒零星 每年多士 居接之時 使喚極難 至有賁人之弊 境內各寺中 金谷靑蓮道德諸菴 僧徒幾名式 每依本齋分付 收聚盤器 以爲居接時 供養使喚之地是齋.

一, 本齋 四山局內 皆是先賢命名 遺躅之地也 某丘某壑 尙留杖履之痕 一草一木 摠被題品之光 則其所以守護 禁養之爲 尤可各別惕念 若有窺覬丘壑 剪伐松楸者 自官從重嚴治以爲 保護重地之道時齋.

一, 本齋 齋畝與接畝 皆是養士之具 而如有法久 生弊之端 自官釐正是齋.

一, 右完文作廳 一則揭于本齋門樓 以爲遵守奉行之地是齋.

에서 바로 잡을 것.

- 이상의 완문을 녹봉정사 門樓에 게시하여 영구히 준수 봉행할 것.

이 완문에서 보면 적어도 1833년까지 서재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①규모는 알 수 없지만 齋畝와 接畝가 있었고, ②물력을 제공하고 역을 면제 받는 贖人(良贖·奴贖) 20인과 각종 잡역에 종사하는 산직·고자·노복을 두었고, ③유생의 공궤와 사환을 위해 인근 각 사원의 승도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정사 건립 초기부터 있어 왔다고 보이며 이때 와서 감사가 완문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확보와 운영은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모든 조치는 목사였던 황준량이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완문에서도 보면 정사 건립 당시 황준량이 조치한 소속 승려와 소속인들에 대해서 군역을 포함한 일체의 잡역을 면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황준량은 성주목사 재임시 이와 같은 향교·서원 중수, 서당·서재 건립뿐만 아니라, 단양군수 부임 때부터 계획했던 이황이 편찬한 『朱子書節要』 발간을 1561년(명종 16)에 감영과 경주·상주 등 열읍의 재정 지원과 임고서원의 목활자를 빌려 완수하였다. 이는 『주자서절요』의 가치를 고양하고 증진시키는 매우 특기할 만한 발간 사업이었다. 아울러 그 전말을 밝힌 ‘晦菴書節要跋’을 지었다. 황준량이 약 4년간 성주목사로 재직하면서 이황 학문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를 해결해 낸 것은 그에게는 큰 보람이었다.³⁵⁾

또한 현재 풍기에는 황준량의 유품이 남아있는 錦陽精舍와 郁陽書院이 있다. 금양정사는 황준량이 만년에 고향인 郁錦 계곡에 정사를 지어 강론하고 수양할 수 있는 藏修處로 삼고자 한 곳이다. 그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기도 하였다.³⁶⁾ 그러나 황준량은 미처 준공되기 전에 타계하고 만다. 다행히 일을 주관하던 승려 行思가 그의 遺志를 받들어 건립을 마무리 할 수 있

35)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上退溪書>.

36)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3, 詩, <錦陽精舍：石寶蒙泉出 孱顏錦樹開 秋風故山興一醉絳仙臺>.

었다.³⁷⁾ 그러다 1566년(명종 21) 이 고을을 지나던 이황은 금양정사가 황폐하다는 말을 듣고 ‘錦陽精舍完護記文’을 지어, 사찰에 수호 승려의 잡역을 면제하는 帖文을 내려서 승려들이 정성을 다해 정사를 수호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풍기군수 趙完壁에게 직접 부탁하였다. 그 뒤 1595년(선조 28) 柳雲龍도 군수로 부임해 이황의 뜻을 받들어 소속 승려의 역할을 계속 면제해주고 각별히 이 정사를 돌보았다. 불행히 병자호란 때 화재로 소실되자 1701년(숙종 27) 풍기군수 洪景濂이 황준량의 후손들과 협력하여 중건하였다.³⁸⁾ 이후에도 몇 차례 보수가 이어졌다. 강필효의 『해은유고』에 의하면 1806년에 이곳에서 강회를 열었다고 한다.

옥양서원은 1662년(현종 3) 풍기지역 사림들에 의해 이황을 주향으로 배향하고, 1669년(현종 10) 황준량을 종향으로 모신 서원이다. 황준량의 출신 지이며, 퇴계학의 정통을 계승한 그를 옥양서원에 종향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풍기지역은 퇴계학을 수용하고 계승하면서 풍기의 유품을 확인하고 현양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준량은 옥양서원에서 두번이나 黜享의 수모를 겪었다. 첫 번째는 1674년(현종 15)부터 1675년(숙종 1)까지 일어났던 시기로, 황준량이 소수 서원의 문제를 해결 할 때 원망을 품었던 순흥 儒士들이 무단으로 서원에 출입하여 위패를 강제 철거한 일을 말한다. 그러나 풍기지역의 사람들이 변무하여 복향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당시 이조참의 이선의 출향 관련 상소로 조정에서 시비가 일어나, 서인들의 찬동으로 출향된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면서 환향될 수 있었다. 옥양서원의 구체적 활동은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서원의 위상 격상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액청원을 1741년(영조 17)에 추진하지만 이 시기 서원 금령 정책에 맞물려 실패하였다.³⁹⁾

37)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9, 부록, <錦陽精舍 完護記文>.

38) 洪景濂, 『錦溪精舍重修記』.

39) 『豐基郁陽書院事蹟』.

이후 옥양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훼철되었다. 그 터에 壇所를 설치하여 향사를 지내왔으나 1983년에 소재지인 옥금리가 댐으로 수몰되면서 단소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93년에 지금의 금계 2리 장선마을 금양정사 앞으로 이건하였다. 이처럼 옥양서원은 끝내 서원으로 복원되지는 못했으나, 현재 금양정사에서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며 옛 풍기지역 유학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IV. 황준량의 서원활동과 교육론

1. 서원활동

백운동서원 건립과 퇴계의 사액 청원 이후 서원이 점차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갔다. 이 시기 지방관으로 부임한 퇴계문인들은 퇴계의 뜻을 계승해 부임지에서 서원을 건립하거나 또한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서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퇴계문인들 중 서원 건립에 관여한 56명 중 2-5개소에 관여한 인물도 있지만, 37명이 1개소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건립에 관여한 서원의 수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 퇴계의 뜻을 충실히 계승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단 1곳이라도 서원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퇴계의 서원관 실현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황준량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을 시작으로 신녕의 백학서당 건립과 성주의 영봉서원 중수를 주도함과 동시에 녹봉정사와 공곡서당을 건립하며 퇴계의 서원건립 활동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황준량은 퇴계의 서원건립 활동을 단순히 보조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나아가 퇴계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스승의 서원교육론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준량의 서원교육론은 퇴계의 그것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었다. 이 시기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의 필요성에 대한 황준량의 생각은 영봉서원 건립을 계획하고 의견을 묻는 노경린에게 답한 편지에 잘 나타난다.

뜻있는 선비들은 향교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오직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속세를 멀리 떠났으니, 앞에 師生의 구애가 없고 뒤에 율령의 얽매임이 없어서 道의 진수를 맛보고 위로 성현을 회구하여...⁴⁰⁾

라 하여 관학은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고 과거와 관련된 곳이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된 성리학 즉 위기지학을 공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 즉 서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퇴계의 서원제에 대한 인식과 같다.

이러한 서원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 건립에 서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황준량은 백운동서원 건립 후 주세붕을 따라 알묘한 바 있었고, 서원과 관련한 다수의 시를 짓기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죽계지』 편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⁴¹⁾ 이에 주세붕은 황준량에게 답장을 보내 백운동서원은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모방하여 체제를 갖추었으며, 안향을 배향하는 것은 주자를 숭상하기 위한 수단⁴²⁾이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보면 황준량은 백운동서원 건립 당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황준량의 서원 건립에 관한 관심은 그의 사촌인 진사 黃楸(黃漢忠의 자)이 서원 운영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租米 75석의 회사로 이어졌다.⁴³⁾ 황빈은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를 이긴 할 때도 많은 협조를 한 사람이었다. 「풍기속상기」에서는

40)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7, <答盧星山仁父論書院事書>.

41)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上周愼齋論竹溪志書>.

42) 주세붕, 『武陵雜稿』 권5, 원집, <答黃學正仲舉>.

43) 백운동서원과 풍기사림에 대해서는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9~64쪽 참조.

前訓導 黃漢弼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 90세에도 변함이 없었다. 고을 사람들로서 배운 바 깊고 앎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다. 바로 愚叟洞主 黃漢忠의 형이자 성균학정 황준량의 외조부이다.⁴⁴⁾

라 하여 이 집안은 풍기의 교화에 힘썼으며 그 중심에 황준량이 있었다. 황준량은 경상감사 안현이 백운동서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斯文立議’를 작성할 때도 6인 중에 1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원 운영에도 일정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1556년(명종 11) 서원 유사 金仲文이 유생을 옥보이고 구타하자 이에 항의한 유생들이 空院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풍기군수 韓琦가 김종문의 유사직을 박탈하였으나 인근 榮川군수 安瑞이 김종문을 두둔함으로써 분쟁이 커져 거의 1년 가까이 공원이 계속되어 서원이 황폐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퇴계문인계의 유생세력이 사실상 서원에서 축출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퇴계는 안상과 풍기군수 金慶言에게 편지를 보내, 김종문을 비난하고 시비를 가려야 할 지방관으로서 김종문 만을 옹호한 수령을 비판하고, 유생의 再聚集을 위한 군수의 주선을 요청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퇴계는 풍기의 황준량과 영주의 박승임에게 부탁하여 원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하였다.⁴⁵⁾ 이렇게 볼 때 황준량은 백운동서원 건립 초창기부터 입원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운영에도 일정하게 관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후 소수서원은 황준량 등의 노력으로 퇴계문인들의 수증으로 돌아갔다고 보인다.

44) 『죽계지』 권1, <풍기속상기>.

45)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韓國史學』 10, 1989;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78~79쪽. 이황, 『퇴계전서』 권12, 서,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丁巳, 郡守金慶言)> “豐二郡先達之鄉居者 如朴重甫·黃仲舉輩而舉起之 令約期詣院 以招諸生以入院 諸生宜無敢不至者 如是則足下有下士之美 諸生無自輕之愧 云” (이 편지는 실제 보내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사정을 잘 알려주고 있다).

황준량의 서원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주의 영봉서원 건립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봉서원은 이황의 서원 보급운동 당시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원이다.⁴⁶⁾ 영봉서원은 1558년(명종 13) 8월에 성주목사 盧慶麟이 성주 사림들의 서원 건립 요청을 수용하여 다음해 여름 완공하고 편액을 영봉서원이라 하였다. 이 영봉서원 건립에는 노경린과 함께 이황과 황준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 사람은 건립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제향인물 선정과 위차논쟁 및 『迎鳳志』 편찬 문제 등 다방면에서 편지를 통해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제시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황준량은 영봉서원 건립에 있어서 노경린과 퇴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퇴계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서원 건립 당시 노경린은 제향자로 성주출신의 고려 충신이며 유학자인 李兆年과 그의 손자 李仁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양자의 봉향문제는 처음부터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노경린은 중국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다양함을 들어 향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황준량을 비롯한 李楨·朴承任·尹春年·金希參 등 京鄕의 사류들에게 의논을 구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당시 황준량은 제향 인물의 선정 여부는

사당과 서원을 세우는 것은 영원토록 경앙할 터전으로 삼기 위함이니, 반드시 先聖을 잊고 후학을 계도한 공이 있어서 世道를 유지하고 백세의 표준이 될 만한 뒤에야 서원에 제향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 鄉先生을 사당에 제향 할 수 있음은 별도로 사우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마땅한 일입니다.⁴⁷⁾

라고 하여 道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조년·이인복은 별도의 사우를 세워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신에 당시 金希

46) 이하 영봉서원에 대한 서술은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2015 참조.

47)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7, <答盧星山仁父論書院事書>.

參 등 사림 사이에 공론화 되어 있었던 김굉필을 배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주는 김굉필의 妻鄉이고 또한 田舍에 왕래한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황준량은 김굉필을 주향으로 한다면 두 李公을 배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역의 인물을 빌려서 사당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⁴⁸⁾

이에 노경린이 김굉필을 제향인물 속에 새로이 포함시켜 이황에게 書院記를 청하자, 이황도 크게 기뻐하면서 “도덕이 근본이긴 하지만 충의도 도덕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3인의 충절·도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원기를 지었다. 그 와중에 황준량이 영봉서원 영건과 서원 내 이조년 사묘를 세우는 사실을 이황에게 알리면서 이조년의 畫像에 염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원 위차 문제) 지금 유생들과 그 가부를 권점하니 한훤당을 홀로 제향하여 정위 남향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 모두 찬성하였고, 문충공(이인복)을 동쪽 벽에 배향하기를 원하는 자도 1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열공(이조년)은 손에 염주를 들고 있어서 학궁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정향 각지의 논의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절대로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손에 염주를 들고 있는 노인을 사당에 놓고자 의논하다면 유생들은 차라리 신발을 신고 떠나고 말아 서원 가운데 유생의 자취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견을 합하여 논의를 결정해야 하는데 유생들의 말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서원기문이 있지만) 그 기문은 목사 노경린이 급박할 때 나왔고 여러 논의가 분분한 날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아마 다시 요량해야 할 곳이 있을 듯합니다. 심분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미 정해진 기문이란 핑계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중의 유생들의 의혹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밝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⁴⁹⁾

여기에서 보면 황준량은 스승인 퇴계에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48) 정만조, 앞의 책, 71~75쪽, 김종석, 앞의 논문(2014), 142쪽.

49) 황준량, 『금계집』 권4, 잡저 <上退溪書>.

그 뜻을 따라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였다. 이러한 황준량의 지적에 대해 이황은 “賢者라 하더라도 당시의 習俗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만, … 후학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도리는 아니다”⁵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서 위차 문제로 노경린이가 다시 문의하자, 도학자와 충절인을 서원에 같이 제향하는 데에는 물의가 있을 것이라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황의 입장은 충절인은 향현사에 제향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영봉서원기」에서 보인 충절과 도덕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므로 3인을 합향해도 합당하다는 그의 견해가 수정되고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자 위주여야 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⁵¹⁾ 이황이 이러한 인식을 확고히 밝히는 데는 황준량의 건의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황은 그의 입장을 서신을 통해 황준량에게 보내 피력하였다.⁵²⁾

이렇게 볼 때 황준량은 서원 건립 초창기부터 퇴계의 서원관을 계승하여 이를 실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준량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봉서원 위차문제) 일찍이 盧仁甫에게 답한 서간은 미처 아뢰지 못했으니, 모쪼록 곡진하게 가르쳐 주시면 마땅히 선생의 가르침을 인편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⁵³⁾라고 한데서 보듯이 황준량은 영봉서원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퇴계의 뜻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황준량이 노경린에게 서원의 기문, 편액 등은 반드시 퇴계의 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데서도 드러난다.

황준량은 영봉서원 건립 후 『영봉지』 편찬과 입원생의 자격기준 등에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영봉지』는 서원 건립자인 노경린이 편찬한 것으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竹溪志』를 모범으로

50) 이황, 『퇴계전서』 권12, 書, <答盧仁甫(庚申), 第一書>.

51) 이황, 『퇴계전서』 권12, 書, <答盧仁甫(庚申), 第二書, 第三書>.

52) 중국서원의 예로 미루어본다면 이조년까지 향사하여도 불가하지는 않으나 다만 서원이 明道學을 위해 설립된 만큼 도학자가 아닌 인물을 제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퇴계는 그전에 염주 문제에 대해서 그대의 말이 지당하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3)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7, 書, <上退溪先生書>.

했기에 그 문제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황준량은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영봉지』의 모범이 되었던 『죽계지』의 편찬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퇴계에 의해 비판된 바 있었다. 퇴계는 朴澤之에 보낸 편지에서 『죽계지』 편찬에 대해 “土友 몇 사람과 함께 그 결점을 지적하여 고치기를 청했지만,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여 듣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⁵⁴⁾ 황준량도 주세붕에게 편지를 보내 『죽계지』 편찬체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⁵⁵⁾ 『영봉지』 편찬의 소식을 퇴계에게 전한 사람도 황준량이었다. 이에 퇴계는 노경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봉지』는 황증거(俊良)가 보내주어 이미 다 보고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나는 항상 『죽계지』가 조잡한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병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만 그 뜻만 취하고 그것을 다 본받지 말았으면 하는데 어찌 하신지요. 그가 뽑은 바의 배움을 위해 가르침을 세운다는 것도 또한 혼잡·문란하여 두서가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영봉지』는 이제 간행을 마쳤습니까?⁵⁶⁾

라고 하여, 주세붕이 찬한 『죽계지』의 형식과 내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영봉지』는 그 형식을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 및 직접 책의 내용을 교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황준량도 퇴계와 같은 입장에서 『영봉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비판하였다.

『영봉록』 가운데 中原 서원의 장소 및 藏書와 學田 따위를 갖추어 실은 것은 고사를 끌어서 증거로 삼아 말하려는 듯하나,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竹溪雜志』는 이제 周武陵(주세붕)의 허물이 되었습니다. 고명한 대가 어찌 반드시 따라서 하려고 합니까. 단지 書帙을 베껴서 學田의 수량이나 시행하는 조목들은 유사에게 보내 잘 전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도 또한 道를

54) 이황, 『퇴계전서』 권12, 書, <與朴澤之>.

55)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上周愼齋論竹溪志書>.

56) 이황, 『퇴계전서』 권12, 書 <答盧仁甫(慶麟) 庚申, 1560)>.

보워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⁵⁷⁾

황준량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봉지』는 교감해 주신 큰 은혜를 입었고, 지적해 주신 곳은 과연 文理가 통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곳에 원본이 없으므로 四印公(노경린)에게 편지를 보내 시비를 정할 작정입니다.⁵⁸⁾

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황준량은 『영봉지』편찬에 그의 뜻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준량은 영봉서원에서 입원생의 자격 기준으로 입격자(생원·진사)를 우선한다는 백운동서원규를 채택한 것은 서원을 건립한 본뜻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영봉서원 입원생의 자격은 초기 『영봉지』 「학규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릇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학업에 전념하는 자는 성균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初試入格者로 한다. 비록 입격하지 못하였어도 한 마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어 操行이 있는 자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유사가 斯文에 아뢰고, 本官과 敎官에게 고하고 받아들인다.

이 규정은 주세붕이 제정한 백운동서원규를 그대로 차용하고 덧붙여 入院 상황을 본관과 교관에게 고한다는 규정을 첨가한 것이다. 이는 『영봉지』 편찬이 『죽계지』를 많이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영봉서원 운영의 방향도 백운동서원의 그것을 계승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경린은 영봉서원을 건립하면서 주세붕을 본받는 것이 숙원이라고 하였다. 백운동서원은 주자의 백록동서원에서 擧人을 받아들였던 것을 본받아 유생의 자격 기준으로 사마시 입격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⁹⁾ 이 규정

57)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7, <答盧星山仁父論書院事書>.

58)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上退溪書>.

은 당시 중앙관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있었던 것 같다.⁶⁰⁾ 백운동서원규의 이 같은 규정은 당시 공신계열과 가까웠던 주세붕의 서원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당시는 연산군 이래 교학체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학진흥책이 모색되던 시기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정사·서원제도가 소개되었다. 宋 이래 중국서원은 과거와 밀착되어 관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주세붕이 백운동서원 건립 당시 입원생으로 생원·진사를 우선 선발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원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봉서원을 건립한 노경린도 주세붕의 서원은 관학을 대신할 인재양성 기구라는 인식에 영향을 받았다.

초창기 서원 보급운동을 주도하면서 조선에서 서원제도를 정착시켰던 퇴계는 이산서원 원규를 제정하면서 입원 자격을 엄격히 정했지만 백운동서원에서와 같이 생원·진사를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서원은 과거준비 기관이 아닌 참다운 수기와 학문의 실천도장이라는 퇴계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⁶¹⁾ 이산원규는 서원규의 모범이 되어 이후 설립되는 대부분의 서원들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입원생의 자격 기준을 학행 위주로 하는 서원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⁶²⁾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봉서원이 입원생의 자격기준으로 入格을 기준으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황준량은 당시 퇴계문도들로 대표되는 사림계의 비판적인 인식을 노경린에게 전달하였다.

59) 『列邑院宇事蹟』 <白雲洞書院規> “凡入院之士 司馬則如入太學 其次 初試入格者 雖非入格 其一 心向學有操行 而願入者 有司稟于斯文 而迎之.” 이 규정에서만 보면 초기 백운동서원은 중앙의 관학인 성균관과 동일선상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향촌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60) 『명종실록』 권20, 11년 정월 임오. 명종 11년(1556) 洪暹은 朝講에서 소수서원의 일을 언급하면서 “非初試入格者 則不許.”라고 한 바 있다.

61) 정만조,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1;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6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221~248쪽.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를 과거의 격식으로 구속하니, 이는 소수서원의 좁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貴院도 入格한 선비를 먼저 받아주니, 말세의 사무에서 비록 程式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도학자들이 藏修하는 터전에서 사소한 문예특일의 말단이나 따지고, 인륜을 밝히고 풍속을 선하게 하는 근본을 우선으로 삼지 않는다면, 상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부지런히 공부하게 한들 한 갓 이익을 노리는 자료가 될 뿐이니, 실용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⁶³⁾

즉 “서원의 본뜻은 과거를 위해 세워진 데 있지 않고 … 오늘날 서원에서 製述을 공부하는 것은 서원을 세워 도학을 창명하는 뜻이 아니다”⁶⁴⁾라고 한 초기 서원의 운영에 대한 이황의 서원 이념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당시 사림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영봉지』 편찬과 서원운영 방침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강하였다. 이후 영봉서원이 1568년 川谷書院으로 개명되고, 1602년 중건 후 원장으로 추대된 정구가 천곡원규를 제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계에게 자문을 구하여,⁶⁵⁾ 문제가 된 입원생의 자격에서 입격자를 우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이후 천곡서원이 이황의 서원론을 계승해 운영되고, 성주권 나아가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그 위상이 증대되었던 것은 황준량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⁶⁶⁾ 이처럼 영봉서원 건립에 깊이 관여한 황준량이 공교롭게도 44세이던 1560년 가을에 성주목사로 부임하여 영봉서원을 중수하고, 공곡서당과 녹봉정사를 세워 지속적으로 성주의 鄉風을 진작시켜 나갔다.

63) 황준량, 『금계집』 외집, 권7, <答盧星山仁父論書院事書>.

64) 이황, 『퇴계전서』 권7, <與琴夾之(應夾)>.

65) 정구, 『寒岡集』 권3, <上退溪李先生>.

66) 영봉서원은 1568년에 정구가 서원의 명칭을 臥龍 고사를 인용하여 이황에게 품의하여 성주에 소재한 伊川과 雲谷의 지명 한자씩 따서 川谷으로 改號하였다. 그러나 임란 때 兵火로 소실된 후 1602(선조 35)년 다시 사림과 지방관이 협력하여 중건하고, 이어 감사 柳永詢의 요청으로 1606년(선조 39) 재사액을 받았다. 동방오현의 한분인 김평필이 중향된 이후 이 지역 출신으로 서원 중건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구와 장현광이 중향되면서 천곡서원은 성주권 나아가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이황은 백운동서원·영봉서원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서원의 문제도 황준량과 상의해 나갔다. 경주의 西岳精舍에서 위차 문제가 발생하자, 이황은 김유신은 武德之人으로 서원에 향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혹시 이 문제가 향중의 논란이 되어 분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편지를 황준량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2. 서원교육론

황준량의 서원교육론은 퇴계가 제시한 講學과 尊賢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전자는 사장학 위주의 공부라 아니라 위기지학, 즉 과거 시험공부보다는 성리학 공부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후자는 서원 제향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퇴계는 서원에서는 제향 인물을 내세우는 것보다 강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제향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서원이 운영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현실에서 퇴계는 서원 건립에 존현의 중요성을 내세웠고, 그 기준으로 도학을 제시하였다. 존현에 대해서는 앞 영봉서원 제향인물의 성격 논쟁에서, 황준량이 퇴계가 제시하였던 도학의 공적을 중요시하였음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학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황준량은 강학에서 퇴계의 서원교육론을 어떻게 계승하였을까? 먼저 강학에 대한 황준량의 생각은 주세붕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 대략을 엿 볼 수 있다. 이 편지는 1544(중종 39) 편찬된 『죽계지』 편찬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번에 또 『죽계지』의 편목을 보았는데, … 다만 編次 사이에 약간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 여러 안씨들의 저술을 모아 ‘죽계지’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晦庵[주자]의 글을 발췌하여 그 사이에 집어넣어 아울러 ‘죽계지’라고 하였으니, 억지스러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 그리고 文貞公[安軸]의 「珠履曲」과 「高陽曲」은 한 때 戲謔에서 나온 것으로서 후세에 詠誦할 만한 것은 아니며, 이는 선생께서도 이미 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께서 聖賢의 격언을 翻案하여 詩歌를 지었는데, 유유히 沂水에서 목욕하고 시가를 읊으며 돌

아오는 뜻이 있으며, 浩然히 천리가 유행하는 묘미가 있으니, 역시 조예가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옛것을 번안했다 하나 자신이 지은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면, 역시 이 『죽계지』에 함께 편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⁶⁷⁾

위의 편지는 얼핏 보기에 『죽계지』 편차와 관련해 황준량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장학에 치우친 주세붕과 반대로 경학을 중요시하던 황준량의 인식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 주세붕의 경우 『죽계지』에 주자의 글을 모두 엮어, 과거 공부용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백운동서원 건립 시 주세붕은 서원을 관학의 보조 기구로 생각했으며, 사장학에 열중하던 향교처럼 주자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죽계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반면, 황준량은 『죽계지』 편차의 일관성을 주장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道統을 중시하는 학문적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 주자의 학문이 사장학을 공부하기 위한 책에 두서없이 수록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또한 황준량은 安軸의 시를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비록 황준량은 안축의 시가 번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러한 시의 번안은 과거 공부와 연결된 사장학의 한 경향이었다. 황준량은 주세붕의 『죽계지』 활용 방안이 자칫 백운동서원의 원생들을 사장학에 경도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황준량은 퇴계의 강학론을 계승하여 사장학 위주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자세는 일찍이 단양군수 재임 시절 지은 단양향교 중창 기문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三代의 학문은 모두가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어려서는 청소하고 어른 응대하는 예절을 익히고, 장성하여서는 修己治人の 도리를 가르쳐서 학문이 자신의 몸에 체득되고 교화가 세상에 행해져, 집집마다 벼슬에 봉해줄 만한 풍속이 이루어졌다. … 학문을 하는 순서는 義와 利를 분별하는 데에 신중하고 誠과 敬의 실상을 체득하며, 먼저 『大學』을 공부한 뒤에 다음으로 『논

67)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上周愼齋論竹溪志書>.

어』와 『맹자』에 미치고, 程子와 朱子를 경유하여 顏子와 曾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 만일 口讀이나 익히고 시문이나 읊으며 이익과 영달을 꾀하려는 계획일 뿐이라면 이미 교육의 본의가 아닌 것이다. 그런 사람을 나라에서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⁶⁸⁾

단양향교를 중창한 이후 황준량은 ‘수기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문이나 읊으며 이익과 영달을 꾀하는 공부는 교육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사장학 위주의 학문 자세를 비판하며 經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단양군수 재임 시절에는 경학 위주의 공부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 방법은 성주 영봉서원의 원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난다.

필히 먼저 『소학』을 읽어서 몇몇한 인륜과 日用의 常道 및 절차와 행동거지의 준칙에 근본을 세우고 하나하나 강론하여 밝혀, 실천이 견실하게 정해지고 함양이 순수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금에 이르러 더욱 이해를 하여 고인이 교육을 세운 근본을 상고하고 『근사록』을 참조하여 그 의리의 지취를 넓혀나가면 학문의 본말이 거의 아울러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심경』 한 부분은 비록 산만한 듯하지만 先儒들의 격언을 附註로 하여 오로지 마음 다스리기를 위주로 하고, 敬을 주로 하고 ‘理’를 궁구하는 요체가 거의 미진함 없고 더욱이 心術의 은미한 즈음에 대하여 통렬히 드러내었으니, 이른바 ‘一病一藥’이라는 것으로서 또한 강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 책을 통해 研鑽의 공력을 겸해 쌓은 연후에 四書에서 그 極을 모으고 그 선후 차례를 문란하게 하지 않으면 思辨의 공력이 외울 때와는 훨씬 다를 것입니다.⁶⁹⁾

황준량은 위의 편지에서 서원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소학』, 『근사록』, 『심경』을 거론하였다. 가장 먼저 『소학』을 익히고, 차례대로 『근사록』과 『심경』을 공부해야지 학문의 기반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사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분변의 능력이 완성되면, 비로소 문장을 통해 과거를 준비해서 수기치인의 뜻을 이룰 수

68)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丹陽鄉校重創記>.

69) 황준량, 『금계집』 내집, 권4, 잡저, <與迎鳳諸賢書>.

있다고 하였다. 단순히 사장학 위주의 교육 실태를 비판하고 경학의 중요성만 거론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목과 그것의 학습 절차와 효과를 거론하였던 것이다.

V. 맺는말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지만, 여기에는 퇴계의 서원론에 공감하고 서원보급에 동참하였던 퇴계문인들의 역할이 컸다. 그 가운데 황준량은 서원이 보급되던 초창기에 퇴계와 더불어 활발히 서원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황준량은 목민관으로 재직하며 지역의 교육 사업에 큰 관심을 두었고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 인물이다. 신령현감으로 재직 시에는 자양서당 기문 작성, 문묘 중수와 백학서당을 건립하였고, 이어 단양군수 때는 단양향교 중수와 단양 출신 우탁의 별묘를 지었다. 특히 성주목사 시절에는 영봉서원을 중수하고 나아가 공곡서당과 녹봉정사를 건립하는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쳤다.

황준량은 퇴계의 서원건립 활동을 단순히 보조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퇴계의 서원교육론을 충실히 계승하여 확산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성주의 영봉서원 건립 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논란이 된 제향인물 선정과 위치논쟁 및 『영봉지』 편찬 문제 등 다방면에서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황준량은 영봉서원 건립에 있어서 실무자 노경린과 퇴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퇴계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황준량의 서원교육론은 퇴계가 제시한 講學과 尊賢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즉 강학은 사장학 위주의 공부가 아닌 위기지학을 준현은 도학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단순히 사장학 위주의 교육 실태를 비판하고 경학의 중요성만 거론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목과 그것의 학습 절차와 효과

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퇴계의 서원건립 활동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황준량은 퇴계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황준량 사후 이황이 주력했던 현양사업에서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1563년(명종 18) 황준량이 죽자 퇴계는 직접 그의 관에 銘旌과 행장을 손수 지어 그의 일생을 서술하고, 제문과 만사까지 직접 지어 그의 넋을 위로했다. 특히 친히 행장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이황이 생전 지은 행장은 명종과 부친을 제외하면 조광조·이현보·이언적·권벌·황준량 총 5회에 불과한데 제자로는 황준량이 처음이자 유일한 경우이다. 나아가 『금계집』 내집 4권을 직접 교열⁷⁰⁾하고 편차를 마친 뒤, 李山海에게 부탁하여 발문을 작성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다.⁷¹⁾ 또한 퇴계는 황준량의 유품이 남아있는 금양정사의 수호를 풍기군수에게 직접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는 마치 공자가 안연을 생각한 것처럼, 제자 황준량을 사랑하고 아꼈던 퇴계의 마음이 잘 묻어있는 대목들이다.

박세채가 지은 『東儒師友錄』에는 퇴계학과 문인들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는데 정구·기대승·조목·南致利·황준량·권호문·이덕홍·류성룡·김성일 순으로 서차를 정했다. 이는 이황의 고제자로서의 황준량의 위상이 상당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8월 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70) 이황, 『퇴계전서』 권23, <與趙士敬(甲子)>.

71) 황준량, 『금계집』 내집, <跋文(李山海)>.

참고문헌

『經國大典』, 『星山誌』, 『列邑院宇事蹟』, 『竹溪志』, 『신증동국여지승람』,
『迎鳳志』, 『조선왕조실록』, 『漆谷誌』, 『豊基郁陽書院事蹟』

李東汲, 『晩覺齋集』

이황, 『퇴계전서』

정구, 『寒岡集』

鄭梯, 『南窓集』

주세붕, 『武陵雜稿』

황준량, 『錦溪集』

이우성,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단양향교지』, 단양군, 2010.

권시용, 『퇴계문인의 서원건립활동』,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종석, 「錦溪 黃俊良의 사상과 退溪學 계승 양상」, 『퇴계학논집』 136, 2014.

김형수, 「李滉 書翰을 통해 본 明宗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2015.

Abstract

Seowon Activities and Education Theory of Geumgye Hwang Jun-ryang

Lee, Soo-hwan

This study has reviewed Hwang Jun-ryang who was a disciple of Toegye Yi Hwang and placed endeavors in establishment of seodangs (school) and jeongsa (place of study) at the time there was active effort for establishment of sedang and seowon by Toegye and his scholars. Seowon was a representative folk village organization of local elite scholars after the mid-period of Joseon Dynasty that it has been an important theme to understand the Joseon society, and therefore, there have been number of studies thereof,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explain the seowon dispersion movement or their seowon activities and so forth by the scholars under Toegye.

Toegye was the one who dispersed and settled seowon in the Jeseon society by defining its characteristics and laid down the foundation, but significant attribute has to be made for the works of Toegye scholars who sympathized to the seowon principle and participated in the seowon dispersion movement. Hwang Jun-ryang was a representative person who was actively engaged in the seowon activities together with Toegye in the beginning period to disperse seowons. When serving as the local officers of Sinnyeong, Danyang, Seongju and

others, Hwang Jun-ryang was deeply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Baekwun-seowon and Youngbong-seowon, and furthermore, Sinnyeong Baekhak-seodang, Seongju Nokbong-jeongsa and Gonggok-seodang were established to undertake an important role for expansion of the education principle of Toegye. Therefore, the review on his seowon activities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a certain degree to understanding of Toegye's seowon dispersion movement.

Keywords

Baekhak-seodang, Nokbong-jeongsa, Youngbong-seowon,
Youngbong-ji, Geumyang-jeongsa